



울산지부 2022년 지부 집단교섭 시작

2022년 4월 14일 14시 마우나리조트 5층 컬럼비아홀에서 최용규지부장 · 각 지회 지회장 · 지회 교섭위원과 이현덕 사측 교섭대표와 각 사 대표와 함께 2022년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가 진행되었다. 이번 지부집단교섭에는 새롭게 SHB사내하청지회가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상견례에 앞서 지난 21년 완료되지 못한 2021년 지부 집단교섭 조인식을 진행했고, 사측에선 모종의 사유로 연내 끝내지 못했던 지난 교섭에 대하여 노사의 소통과 화합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진 상견례 자리에서 노·사 참석자 소개 및 인사를 진행하며 상호 성실교섭을 약속하였다.

최용규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 간 약속인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개악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약속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며 사측에게 상호 존중의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윤석열 당선자의 반노동행보가 예상된다.”며 “노동을 배제한 재벌 중심의 산업전환의 끝은 파멸만이 존재할 뿐이다. 금속노조는 모든 것을 걸고 적극 투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제 본격적인 2022년 지부집단교섭이 시작되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